

양성평등한  
한양캠퍼스 문화를  
위하여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prevention guide

# 성희롱·성폭력 예방 가이드

교수용



한양대학교 | 양성평등센터



# 양성평등의식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대학은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캠퍼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2001년 '한양대학교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부총장님 직속의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및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성희롱고충처리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엄정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와 소속 기관 역시 큰 고충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철저한 사전 예방 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예방적 관점에서 교육 현장의 중심에 계시는 교수님들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이해와 균형 잡힌 성의식이 새삼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히 다음의 상황이 양성평등에 대한 보다 첨예한 의식이 요구되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회 변화와 더불어 일반 성의식과 도덕, 그리고 법적 규범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에 발맞추어 기존 사고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세대는 성의식을 포함해 전반적인 분야에서 평등에 대한 욕구가 크고, 개인의 권리존중에 대한 기대치도 높습니다. 교육 및 생활지도로 학생들과 긴밀하게 접촉하시는 상황에서 이처럼 변화된 세대적 특징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우리 학교에는 각국에서 온 많은 유학생 및 교수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학점교류나 연수를 위해 출국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해외연수 지도나 다문화 학생 및 동료 교수들과의 교류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예방하려면, 글로벌한 규범에 부합하도록 젠더 윤리적 감수성을 보다 세심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캠퍼스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교수님께서 조정자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관련 지식과 판단기준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계신다면, 사건 발생 시 혼란에 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차분하게 조정과 중재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스마트폰 등 촬영이 가능한 각종 첨단기기들이 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세대보다 이러한 첨단기기에 친숙한 우리 학생들이 기술적 발달에 부응하는 올바른 성의식을 갖추고 새로운 법적·도덕적 규범에 잘 적응하도록 교육과 일상생활에서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성희롱·성폭력 예방 가이드

# 성희롱과 성폭력 : 개념 정의와 관련 규정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폭력 등 다양한 용어가 법적인 또는 일상적인 의미로 혼용되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성폭력

정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지칭하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 법률에서 명시하는 성폭력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이 이에 포함됨.

(\* '성폭력'은 '성희롱'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공공기관 등에서는 주요 이슈인 '성희롱'을 따로 구분·강조하기 위해 '성희롱과 성폭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 세부행위별 정의 및 관련 규정과 법률

#### ● 성희롱<sup>1)</sup>

정의: 교육,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관련규정: 한양대학교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01.1.1, 개정: 2012.6.27)

관련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 ● 성추행(강제추행)과 성폭행(강간, 유사강간)

정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sup>2)</sup>하거나 강간하는 것.

관련법률: 형법 제32장, 제38장 중 제339조의 죄, 성폭력특별법(1994년 제정)

#### ● 준강제추행과 준강간<sup>3)</sup>

정의: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 또는 간음을 하는 것.

관련법률: 형법 제32장 중 제299조의 죄, 성폭력특별법(1994년 제정)

1) 어떤 언행은 성희롱 및 성추행, 또는 성폭행으로 동시에 신고 될 수 있음.

2) '추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함으로써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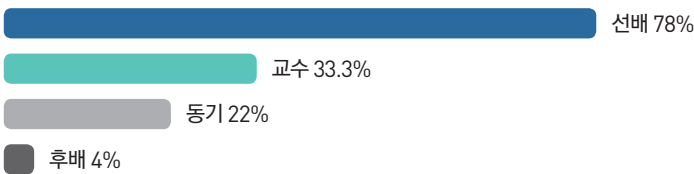
3) '준강제추행과 준강간': 음주, 약물 등으로 인해 판단 및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상대에게 가해지는 행위로, 강제추행 및 강간에 준하는 위중한 범죄로 처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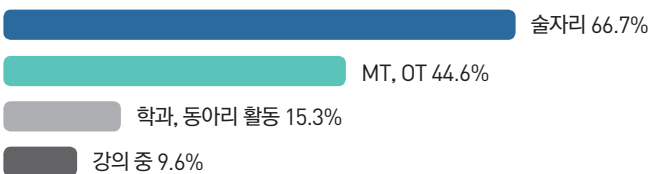
## Q. 성희롱 ·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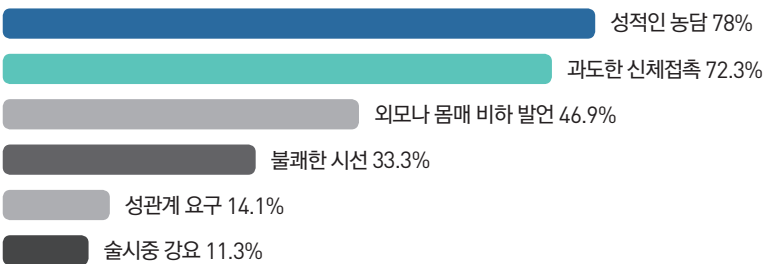
## Q. 가해 행위자는?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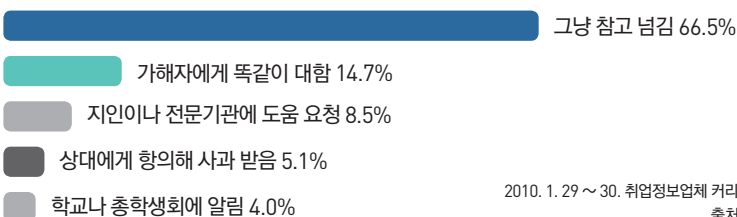
## Q. 피해 발생 상황은? (복수응답)



## Q. 피해 내용은? (복수응답)



## Q. 피해 발생 시 대응은?



## 개인이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 받은 사례

(2010. 4. 19.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모 대학교의 A교수는 수업 도중 B학생이 딴 짓을 하자 “나중에 술집 가서 술 따르는 그런 일 하고 싶으세요? 요즘은 술만 따라 주는 게 아니라 2차도 나간다는 거 같던데.” 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B학생은 심한 성적 굴욕감을 느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학생의 어머니는 그 발언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A교수는 “평소 B학생의 수업 태도가 좋지 않아 ‘나중에 술집 가서 술 따르는 일 하고 싶으세요?’라고 말한 기억은 있으나 2차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 ▶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측 주장 및 당시 수업에 출석한 다른 학생들의 진술 등을 조사하였고, 이를 근거로 A교수의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에 관련하여 ‘술집에서 술을 따르고 2차 나간다는 말은 성적 함의가 높게 포함되어 있는, 여성을 극단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으로서, 교수가 학생의 수업태도를 지적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말로는 적절하지 않다’라면서, ‘수업 중 다른 학생들도 듣는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이 컸을 것이다’라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교수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였다.

## 기관이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 받은 사례

(2005. 9. 2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모 대학교의 C교수는 수업 도중 “요즘 대학생들은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남자까지 파는데 얼굴이 예쁠수록 남자 값이 비싸다.”라면서 D학생에게 “너 정도면 남자 가격이 비싸겠다.”라고 발언하였다. 학생들 앞에서 이 말을 들은 D학생은 매우 창피하여 굴욕감이 들었고, 이 사안을 비롯한 C교수의 그간의 언행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이에 C교수는 “그 말은 딱딱한 수업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였던 말이며, 다른 언행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하였다.

- ▶ 이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C교수가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성적 함의가 있는 언동을 하였고, 이는 일반 여성의 합리적 관점에서 볼 때 심한 성적 굴욕감 또는 수치심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점에서 ‘성희롱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C교수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고, 해당 대학교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해당 대학교 총장은 위 사건을 포함한 성희롱 언행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징계절차를 거쳐 C교수를 해임하였다.

# 학생 지도 시의 성희롱 예방 안내



다음은 각 대학 고충상담 사례 중 빈번하게 발생한 성희롱 관련 상황을 분류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학생 지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의 중의 농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거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소 위험한 수위의 성 관련 발언이나 농담을 하는 경우.**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판단에는 성별이나 연령 등에 따른 개인차가 있어서, 성희롱 의도 없이 건넨 말이라고 해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정한 성에 대한 비하는 물론이고 외모나 능력에 관련한 성적 농담도 듣는 입장에서는 민감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말을 듣는 상대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이라는 점을 유념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신체접촉

**학생 면담 중 위로나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감싸거나 무릎을 토닥거리는 경우.  
학생 지도 중 교수 활동에 집중하여 얼굴이나 몸이 바짝 닿는 것에 신경 쓰지 못한 경우.**

그 자리에서, 학생은 불편한데도 참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벗어난 후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인한 불쾌함 때문에 신고나 상담을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피해자 관점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행위는 오해를 유발할 여지가 있으므로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교육 과정상 접촉이 불가피하다면 관련 내부규정을 만들고, 미리 양해를 구하여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여 주시는 것이 오해를 예방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 회식자리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술자리가 이차 삼차로 이어지거나 일부가 만취하는 경우.**

언어적·신체적 성희롱은 과도한 음주 상황이나 그 이후에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교수님 자신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음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교수님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도 술자리가 이어지는 경우, 만취한 학생들 간에 성희롱이나 성추행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생들 중 책임자를 정해서 남아있는 학생의 안전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MT 및 답사

**MT, 답사 등 '숙박을 하는 학교 행사' 중 남녀가 한 방에서 자거나,  
단체로 선정적인 게임을 하는 경우.**

외박, 야외활동, 음주는 성희롱 유발과 관련이 있으며, 학과 MT나 답사 등의 학교 행사는 이런 요인들이 중복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개인 차원의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사건이 자주 발생할 뿐만 아니라, 단체로 진행된 프로그램이 성희롱으로 신고 되어 언론에 알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개개인의 행동을 모두 통제하기는 어려우나, 출발 전부터 학생들에게 안전 운영을 당부하고, 프로그램을 미리 확인하는 등 관심을 보여주신다면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Q. 성희롱의 기준이 모호해요.

A. 보통 '성적 언동으로 인하여 상대가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꼈을 경우',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보통 사람이 보기에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낄 만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것을 성희롱으로 판단합니다.

사건이 발생하여 심의할 때, 어떤 언행의 성희롱 여부는 대부분 상호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판단이 이루어지는 만큼, 평소 관심을 기울이신다면 예방이 가능할 것입니다.

## Q. 왜 학생들은 즉각 싫다고 하지 않을까요?

A. 성희롱 피해 상황에서 즉각적인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것은 대부분 상대가 선배나 교수님 등 자신보다 연륜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사회적 지위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는 학생들은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속으로는 불편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성희롱 발생 시의 대처 안내



## Q. 지도학생이 성희롱 피해를 호소해 왔어요.

A. 우선 호소 내용을 잘 듣되, 특히 피해자의 감정을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사과를 받으려는 생각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가도, 가해자나 주변 사람들이 사건을 무마하려 하거나 서둘러 용서와 화해를 권유하면, 이해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피해자는 억울한 마음이 커집니다. 특히 '무마하려는 시도'가 과하면 **이차가해**가 되어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한다는 점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학생이 느끼는 고통과 그간의 어려움을 경청하여 동요된 감정을 가라앉힌 후에, 양성평등센터 등 공식기관으로 안내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 Q. 지도학생이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 되었어요.

A. 의도치 않았다 할지라도, 어떤 언행으로 인하여 다른 이가 상처받을 수 있고 이를 성희롱으로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 되면 당황한 마음에 급하게 상황을 수습하려 하다 보니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령, 가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과도하게 토로할 수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런 언행이 **이차가해** 행위로 인식되기도 한다는 점을 주시시키면서 자중하도록 조언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양성평등센터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침착하게 사안을 처리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양성평등센터 등 전문기관은 피해자를 지원하고, 사건을 조정·중재하지만, 동시에 가해행위의 정도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추행과 성폭행은 최종적으로 형법상의 처벌 대상 행위라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캠퍼스 내 성희롱 ·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 평소 “나는 성희롱적인 언행을 엄하게 벌할 것이다. 성희롱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 됩니다.
- 소모임이나 연구소 등을 운영하실 경우, 성희롱 · 성폭력뿐만 아니라 상호비난이나 모욕 등을 금하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 구성원 모두에게 고지한다면 전반적인 상호존중의 윤리의식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 사건 · 사고의 상당 부분은 ‘음주’나 ‘외박’에 연계되어 일어납니다. 신입생 환영회, 축제, 각종 행사의 뒤풀이나 MT, 답사가 있을 때는 사전에 ‘안전 관리’를 당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행사 중 먼저 자리를 뜨실 경우, 몇몇 학생에게 책임을 부여하여 안전한 마무리를 당부하고 사후보고 하도록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지도 학생들이 캠퍼스 내 인적이 드문 주말이나 야간에 빈번하게 실험이나 연습 또는 기타 작업을 한다면, 미리 성희롱 발생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주는 등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합니다.
-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음란물을 전송하는 행위 등은 사소한 장난으로 여겨서 한 것일지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 범법 행위입니다. 첨단기기의 발달로 이러한 위법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평소 학생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 학과, 연구소, 동아리를 지도 · 관장하시는 입장에 있으시다면, 한 학기에 한두 번 정도 ‘혹시 우리 공동체에 성희롱 관련 고충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적절한 방식으로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은 예방책입니다.
- 우리 학교에는 각국에서 온 많은 유학생들이 함께 생활합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해외 연수나 학습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학생들이 글로벌한 수준의 성의식과 행동규범을 익히는 것이 필요한 만큼, 양성평등센터가 주관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격려해주시요.

## 한양대학교 양성평등센터 소개

모든 한양인들이 올바른 성역할과 윤리를 배우고 실천하며,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균형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양성평등센터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센터는

성희롱 ·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합니다.

성희롱 · 성폭력 예방 자료집을 제작 · 배포합니다.

센터감수성 함양을 위한 관련 교과목을 운영합니다.

성희롱 · 성폭력 피해 신고 접수나 상담을 합니다.

‘성희롱고충심의회’(부총장 직속)를 지원합니다.

‘성희롱고충처리조정위원회’를 지원합니다.

교내 성희롱 · 성폭력 실태 및 예방책을 조사 · 연구합니다.

교내 부서와 협력하여 성희롱 · 성폭력 예방안을 마련합니다.

양성평등 영화제, 사진전, 문화캠페인 등 문화행사를 개최합니다.



## 한양대학교 | 양성평등센터

교수용 성희롱 · 성폭력 예방 가이드

발행처 : 한양대학교 학생처 양성평등센터 발행일 : 2013. 9. 1.

연락처 : (02) 2220-1444

홈페이지 : <http://help.hanyang.ac.kr>